

AX 실증밸리 조성...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 530억 투입

(인공지능 전환)

尹 대통령 민생토론회

미래차 산단 그린벨트 해제 지원
물순환 축진구역 지정방안 검토
광천권역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정부가 광주를 'AI(인공지능) 대표도시'로 육성한다. 미래차 국가산단·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미래차 핵심 부품 전초기지조로 만들어 미래차 소부장 밸류체인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광주 AX(AI Transformation) 실증밸리' 조성과 'AI 과학영재학교' 개교를 통해 광주를 'AI 대표도시'로 육성한다. 광주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은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전국의 AI 기업과 연구자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는 'AI 실증도시 광주' 구현을 추진하게 된다. 또 AI 인재를 조기 확보하기 위해 광주과학기술원 부설로 AI 과학영재학교를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을 추진한다. AI 과학영재학교는 현재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광주시 북구 오룡동에 총 150명(학년당 50명) 규모로 추진된다.

광주에는 기아·글로벌모터스 등 완성차 2개사와 600여개의 자동차 부품기업이 밀집해 있고, 자동차산업은 광주 제조업 생산의 44%, 고용의 24%를 차지하는 지역의 대표산업이다. 미래차 국가산단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발판으로 광주를 미래 자동차 산업의 대표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황규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정책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주지역 민생토론회 중 AI 집적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이를 위해 기 선정된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국가 전략사업 선정을 적극 검토해 산단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또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약 530억원을

투입해 인지·제어·통신 등 3대 분야 기술개발과 자율주행 인증·검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광주가 미래차 핵심부품 밸류체인의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광주 지역 총 220만평 규모 산단을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중 레벨4 이상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에 5년간 200억원을 투자한다. 또 단지 내 올해부터 도입될 국내 최대규모 자율주행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연계해 국제인증 대응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 안전 성능평가·인증 지원센터(테스트베드)'를 2028년까지 신규 구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해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과 실증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자동차 도시 광주가 미래차 초격차 기술과 공급망의 핵심기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광주만의 특색있는 문화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 광주를 문화중심 도시로 자리매김시키고, 대중교통과 안

전한 물 공급 등도 정부가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도달밤 야시장 등 광주 고유 문화자원을 '로컬100' 캠페인, 각종 문화·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국내외에 집중 홍보하고,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미술축제' 브랜드와 연계·홍보,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 2027년 복합쇼핑몰 개장 예정으로 인근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천권역에 정시성이 보장되고 쾌적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해 광주시민들의 복합쇼핑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2023년 극심한 가뭄 때 광주는 영산강의 하천수를 먹는 물로 활용한 바 있어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 광주시를 '물순환축진법(2024년10월25일 시행)'에 따른 물순환 축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1면 '민주화의 도시 광주...'서 계속

"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찾고 싶은 도시 만들 것"

윤 대통령은 ▲광주-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의 AI적용 자율주행차 실증 테스트베드 활용 ▲광산구 광주미래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입지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

'글로벌 문화허브 도시' 비전과 관련해서는 "광주는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국립박물관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춘 문화 중심 도시"라면서 2027년까지 1181억원을 들여 비엔날레 전시관을 신축하겠다고 했다.

또 상무소각장 부지에 내년까지 516억을 투자해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고, 2028년까지 436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복합문화커뮤니티 시설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했다.

이울러 국립광주박물관에는 내년까지 299억원을 들여 도자문화관을 건립해 신안해저 유물과 아시아 도자 문화를 망라하는 거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광주를 문화예술 교류를 선도하는 진정한 아시아 중심도시로 성장하려면 기존의 문화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해 지역 고유의 매력을 키우고,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문화교류의 실질적인 허브가 되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활력넘치는 도시' 비전과 관련해서 ▲간선급행버스(BRT) 구축을 통한 복합쇼핑몰 교통접근성 개선 지원 ▲광역중추병원 육성 ▲영산강수질개선 및 수량 확보를 통한 식수원 활용 등을 세부 지원 사업으로 소개했다.

/서예진 기자 syj@

모빌리티업계, AI기술 도입 속도... '개인 맞춤형 서비스'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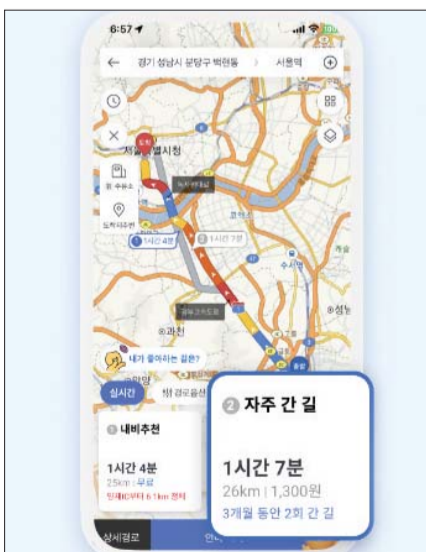
첨단기술 통해 서비스 영역 확장 카카오 선호 경로 반영 길 안내 티맵 운전자·대중교통 서비스 통합

모빌리티 업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 AI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이용자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카카오 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들은 '개인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내비에 이용자의 선호 경로를 반영한 길 안내 기능을 추가했다. 이 기능은 이용자가 이전에 운행한 출도착지를 카카오내비에 입력하면 '이전에 간 길', '자주 간 길' 등을 추천하는 기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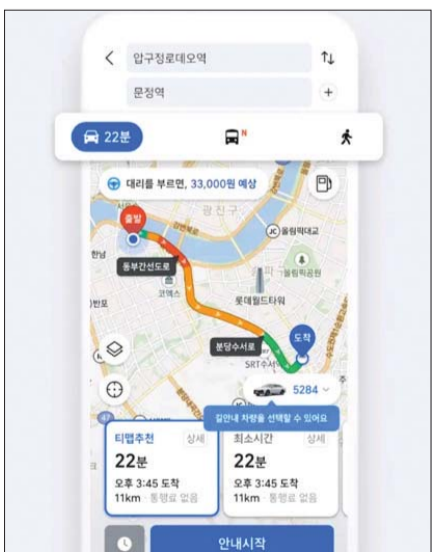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용자 선호 경로를 반영한 길 안내 업데이트 이후 원하던 기능이었던 사용자 반응



카카오내비 이용자 선호경로 반영 길 안내 기능 이미지 /카카오모빌리티

이나오는 등 호응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발표한 '모빌리티 특화 생성형 AI 엔진'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통합 검색을 확장한 '여행플래너' ▲카카오내비 운행 기록을 확장한 '운행기록 A



'티맵' 소개 이미지 /티맵모빌리티

I' ▲평가 시스템을 확장한 '운행리뷰 AI' 등을 초거대 AI 기반으로 선보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선호 경로 추천 서비스' 이외에도 대리운전 수요 예측, 주차장 만차 예측 등 다양한 AI 기능을 제공 중이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택

시 배차 시스템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AI 기반 배차 시스템은 호출이 많이 발생하는 요일, 시간대, 출도착지 인근 택시 수요 공급 현황, 과거 운행 패턴 등 30여 가지 변수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해 최적의 기사와 승객을 매칭해주는 기술이다.

관계자는 "기존 AI 배차시스템과 최단거리 배차시스템을 병행해 택시와 이용자 매칭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티맵모빌리티는 최근 'AI 기반 장소 탐색 서비스'를 연내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네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 티맵을 활용해 목적지를 설정한 후 주변 식당이나 명소를 추천받는 방식인 반면, AI 기반 장소 탐색 서비스는 사용자가 목적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티맵 역시 AI를 활용한 초개인화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해 왔다. 티맵은 지난해 9월 운전자 중심 플랫폼에서 영역

을 확장한 모빌리티 슈퍼앱 '올 뉴 티맵'을 출시했다.

이 앱은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전자 중심의 서비스와 대중교통 서비스를 통합하고, AI를 활용한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전자는 길안내, 주차, 대리운전, 전기차 충전 등의 서비스를, 대중교통 이용자는 지하철 도착이나 버스 이동시간을 계산해 최적의 경로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티맵 관계자는 "출퇴근 길에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이 장시간 지연될 경우, 다른 교통수단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며 "도보 이동이 길어지면 주변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PM) 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티맵모빌리티가 AI 기반 '초개인화 서비스'를 강화한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티맵의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지난해 10월 1471만에서 올해 2분기 1490만명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이혜민 기자 hyem@